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1236 호 현대불교
2019년 3월 13일(2월 7일) 수요일 / 불기 2563년

우주 삼세가 그대로 공해서 문이 없도다

촛불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 올해 설날에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선원의 촛불재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마음이 뭔가 모르게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절과 달리 설날에 그렇게 촛불 의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변: 선원에서는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초삼일까지 새해맞이 촛불재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래 안다면 아마 전자에 선지식들이 그렇게 방편을 일러 주시고 많은 설법을 하지 않았을 거고, 또 부처라는 이름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모르니까 염불도 있어야 했고, 그 옛날 법을 다 갖추어야 했고, 지금 현재 법과 예전 법이 둘이 아니게 우리는 항상 따라야 하는 것이 예의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모르면서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 해서는 아니 되죠.

우리가 왜 촛불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보이는 물질의 촛불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촛불재를 하는 것은 방편으로서, 마음이 없으면 그 촛불을 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본래 마음이 밝아 있지 않다면 밝다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을 밝힌다는 생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래 마음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촛불을 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다 가설이 돼 있다고 항상 얘기하죠. 한 가정에 내 자식, 내 부모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가설이 된 겁니다. 전체가 그렇게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도 내 마음이 밝아지면 그 마음도 밝아진다는 얘깁니다. 전기 가설을 하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듯이, 그것은 자연히 되어 있는 마음의 가설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촛불 하나 켜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의 마음을 밝아지게 할 뿐 아니라 현재의 내 마음도, 양면을 다 밝아지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또 이런 요건도 있죠. 이 세상에 나올 때 제각기 다 혼자 나오죠? 갈 때도 혼자 가고요. 대신 가 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밝히는 것도 컴컴한 두뇌를 밝히는 것도 바로 제각기 각자 하는 거죠.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식구들이 오지 못할 때에,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음이니까 대신하지, 뭐. 혼자 대표로 하면 되지.' 이러지는 마세요. 촛불재라는 것은 유위법이나 무위법에서 내가 형성되고 살아나갈 때에 컴컴했던 일을 다시금 내 깊은 마음에 의해서, 밝은 지혜 물리를 내기 위해서, 항상 뿌리가 깊게 밝아 있으니 스스로 밝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재를 하는 겁니다. 들고 켜고 하는 것이 방편이라고 하지만은 방편이자 진실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거나 열심히 하는데도 안된다거나 또는 본인 자신도 어쩌지 못하고 말썽을 피우는 것도 다 업식으로 인한 거니까 본인이 마음의 촛불을 켜 들고서 간절히 관하게끔 만들어 주고, 또 본인이 부득이 못하게 되면 부모라도 대신해 주어서 그 간절한 마음의 전달로 지혜 물리가 터지게 하는 겁니다. 각자 내가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해 놓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을 게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만 내가 한 것만치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재라는 것이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태워서 어두움을 없애고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촛불처럼,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명을 밝히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항상 마음의 뿌리가 밝아지도록 발원하는 방편이자 진실한 의식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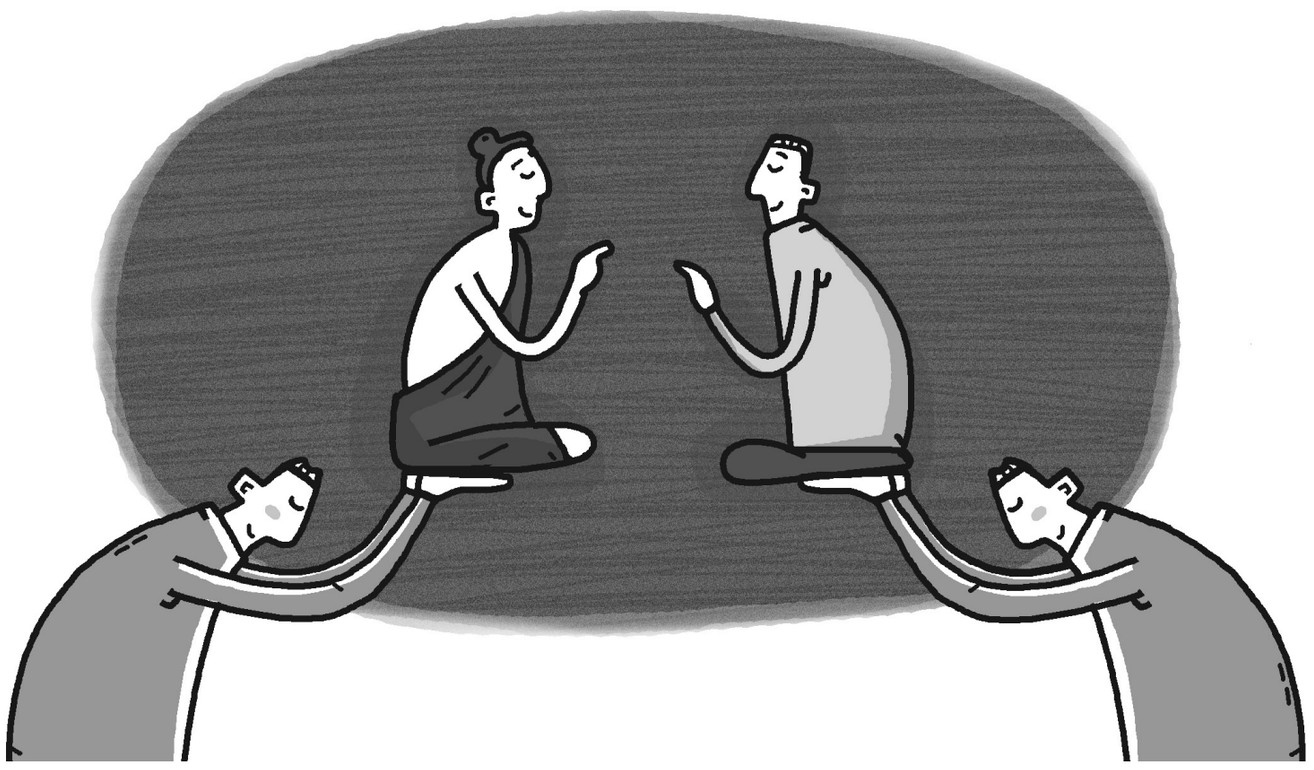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아직 부자 상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큰스님께서는 부와 자가 상봉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오랫동안 마음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부자 상봉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답변: 우리가 제일, 여러 마디 하는 거보다도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면은,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는 거다 이겁니다. 통하고 안 통하고 그걸 떠나서 자기 선장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그래서 잔잔하든 파도가 치든, 양면을 다 놓고 그 선장한테 맡겨 놓는다 이겁니다. 만날 한 말이지마는 거기에 닿지 않고 가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그 자체의 선장. 우리는 그냥 마음이지만 그 선장의 마음은 한마음이거든요. 그러니 그 선장이 끌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파도가 친다고 해서 배 뒤집힐까 봐 막 그냥 야단법석을 하면은 그 선장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배가 뒤집히죠. 그와 같이 우리 몸뚱이를 배로 비유를 했다면 그렇단 얘깁니다. 선장이 자기를 끌고, 지금 선장 주인공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데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고 그런다면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와 같습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이 세상에 누구를 믿을 데가 있느냐? 못났든 잘났든 네가 이 세상에 나와서 너만이 너를 믿을 수가 있잖아!" 자불이 모두 있다고 그런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믿을 데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대신 똥 눠 줄 수 없고 밥 먹어 줄 수 없고 잠자 줄 수 없고, 아파 줄 수 없고 죽어 줄 수 없고 깨달아 줄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놈을 믿어야 할지 믿는 걸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이끌어 가는 자기 주인공, 자불밖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자불로 인해서 수없는 제불이 다 이렇게 찰나찰나 엮어지니깐요. 그리고 통신이 되니까요. 그리고 항상 들고 나고 하시거든요, 그 자불 주인공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인공, 주인공" 그러는데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이 고생은 해도 죽는 거 못 봤죠? 아주 끄트머리의 결과는 회향을 잘하고 끝내지 않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바깥으로 끄달리지 말고 안으로 열심히 관하면서 자기가 실천에 옮기고 자기가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해 보다 보면 차차차차 그게 경험이 되고 그래서 깨쳐진단 말입니다. '아, 이럭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선 좇아가니까 어떤 게 닥쳐와도 해결을 할 수 있으니 '아, 바로 이게 반야줄이구나! 이게 바로 그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길, 그 미세한 그 티끌 수와 같은 세계로 가는 거구나!' 하고 그냥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마음이, 그 헤아릴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길이 수천수만이 된다 하더라도 한 찰나입니다. 요기서 조기 나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내 이 육체가 새 둥우리라고 합시다. 새 둥우리 속에 새가 들어 있다. 이 몸이 형성됐으니깐 그 속에 자불이 들어 있는 거지, 지붕도 안 해 놓고 부처님 모시는 거 봤습니까? 다 집을 마련해 놓고 자불을 거기다 모시는 거죠. 자불은 영원한 겁니다, 자기의. 여러분들의 자불은 다 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업신여기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섭섭하게 하지 마라."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죠. "벌레 하나도 살생하지 마라." 이랬고요. "그것도 네 생명이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살아서 공부하는 거지 죽으면 공부 못해요. 부딪치는 체가 있어야 되는데 체가 없

☞ A18면으로 계속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19년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포교 – 생활 속 마음공부



일 정 2019년 5월 16일(목) ~ 18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지번) 신평동 150-8)
교 육 비 20만원
정 원 50명(선착순 마감)
문 의 031-470-3200(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 내면의 불성을 발견하고 마음의 힘 회복하기
▶ 지혜로운 소통으로 가정, 사찰, 사회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 삶의 의미와 행복 찾기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마음공부와 치유	생활속 마음공부 : 원리와 방법1	특강 : 마음과 과학
주인공 관법 (한마음공생실천교육과정)	원리와 방법2 (둘 아닌 도리)	
	포교 및 활동사례	

교 재 건널강이 어디 있으랴(한마음출판사),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참고도서 꽃을 피우는 나무(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해 주인공(성균관출판부) / 공부(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QR코드를 스캔하세요.